

<복작BOOK작 우리동네 그림동화 작가교실>

* 양아들의 금귀걸이 그리고 왼쪽 눈썹의 비밀

* 신비한 금귀걸이와 소희의 여행

작 가 김규인 김나연 김하윤 박자인 배서진 배지운 오해림
유아린 이세린 이주안 임소연 정수아 조유나 차루나



표지그림작가 조유나

퍼내는 글

김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김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역의 역사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작 동화책을 만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김포에 수많은 역사 스토리와 인물들이 있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금귀걸이가 출토된 김포 운양동 원삼국시대 무덤유적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 주제로 삼았습니다.

남겨진 유적과 유물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오래 전 김포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마음과 눈을 통해 상상하며 마음껏 그려본 이야기 속에는
김포의 과거 뿐 아니라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어엿하게 작가로 데뷔하게 된 14명의 김포 어린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활동과 삶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 -



복작BOOK작 <우리동네 그림동화 작가교실> 그림책 첫 출판을 축하하며

지난 10주간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아이들과 극단 동네풍경은
김포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고고학자가 되어 양촌읍과 운양동에서 발견된 분구묘를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작가가 되어 운양동 12호에서 발견된 금귀걸이 유물에 얹힌 이야기를 상상하기도,
장면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배우가 되어 직접 만든 이야기를 연기도 해보았습니다.

14명의 아이들이 두 편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김포에 대해서 알아감과 동시에
친구들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기억들도 한 편의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라며
김포 어린이 작가님들의 그림책 출판을 축하합니다!

- 극단 동네풍경 -



우리동네
그림동화
작가교실

양아들의 금귀걸이 그리고 왼쪽 눈썹의 비밀

작가의 한마디

양아들의 금귀걸이 그리고 왼쪽 눈썹의 비밀



김나연 윤유초/4학년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박자인 은여울초/5학년

열심히 썼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배서진 푸른솔초/4학년

열심히 만들었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유아린 금파초/4학년

주인공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주안 나진초/4학년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수아 하늘빛초/4학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유나 향산초/6학년

우리 책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여의 귀족인 원은 가보인 금귀걸이를 들고 도망쳐 나왔어요.
귀한 금귀걸이를 노리는 부여 왕으로부터 가보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원은 오랜 시간 배를 탄 끝에 겨우 마한 땅에 도착했어요.



원은 태희라는 가명으로 정체를 숨긴 채 모담산 종턱 낚은 움막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를 구해주게 되었어요.

그는 마한에 제일가는 귀족 서단의 시종이었죠.

서단은 원에게 자신의 시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어요.

**"이름이 태희라고 했는가? 내가 가장 아끼는 시종을 구해주다니,
내 꼭 도움을 주겠네!"**

그 후로 원은 산짐승을 잡아다 서단에게 주고,

그 값으로 음식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루는 원이 큰 곰을 사냥한 후 그 가족을 서단에게 가져다주었어요.

서단은 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자네의 왼쪽 눈썹이 오른쪽에 비해 불에 탄 종이처럼 짧은 것을 보니
부모와의 인연이 짧을 수도 있겠네.
내 오늘 저 곰 가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멋진 눈썹을 선물하지."

서단은 원에게 눈썹을 그려주었어요.

새 눈썹을 얻은 원은 서단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원은 시장에서 방을 보며 수군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부여의 역적이라지?"

"역모를 꾸민 자들은 모두 사형이 됐는데, 아직 아들을 못 찾았다네."

원은 방에 그려진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단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럴 수가, 나리의 말이 맞았구나.

마한 전체에 날 찾는 방이 붙었으니 잘못하면 정체를 들키고 말겠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원은 금귀걸이가 잘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금귀걸이는 무사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말굽 소리가 들렸어요.

말은 원의 움막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수상한 사내가 말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여기가 은신처인가?"

원은 사내를 피해 재빨리 달아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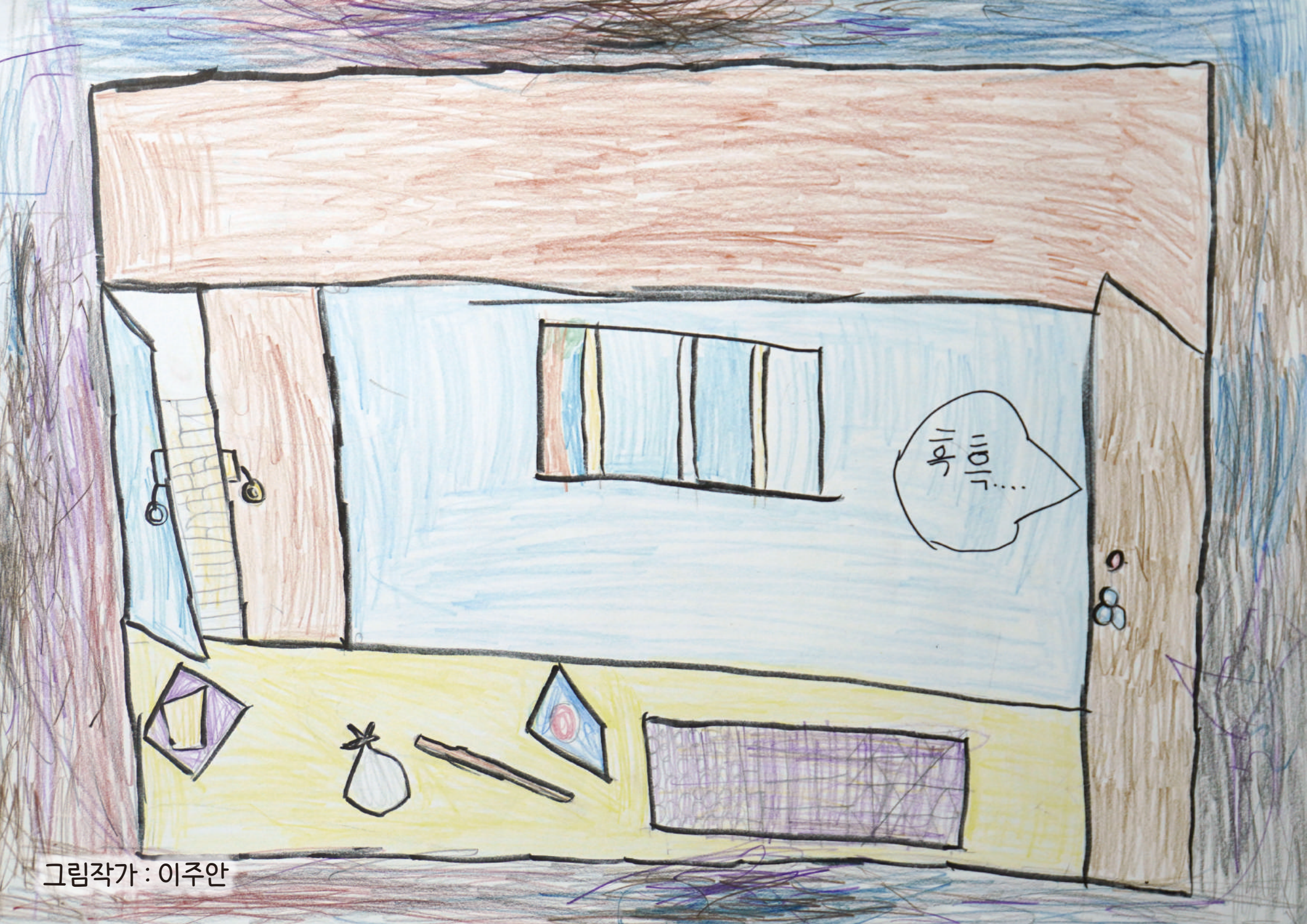
원은 서단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서단이 말했어요.

"이 한밤중에 누구요?"

원은 서단에게 첩자를 피해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찾아온 이유를 둘러댔어요.

**"저 태희입니다, 나리.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을 훔쳐 간 것도 모자라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하루만 신세 질 수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 사정이 딱하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게."
서단은 흔쾌히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원은 서단의 집 창문이 있는 방에서 목계 되었어요.
이제 마한에서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자 원은 막막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살아야 해!"



누군가 서단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나리, 저는 부여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부여의 역적을 찾고 있사온데 집안을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원의 집을 찾아온 첩자였어요.

서단은 문을 열었어요.

"역적이라니. 그런 큰 죄를 지은 이가 마한에 있단 말이나?
자 어서 들어와 살펴보게."

첩자는 집으로 돌아와 서단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원의 마음은 초조해졌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잡히겠구나!"



방문이 열렸어요!

첩자는 방에 그려진 얼굴과 원의 얼굴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어요.

첩자는 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서단이 말을 이었어요.

"아 이 자는 내 시종일세.

보게, 그림 속 역적과 왼쪽 눈썹이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첩자는 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펴보았어요.

"아 자네가 찾는 이가 이 사내인가?

이 자는 모담산 중턱에서 지내다 최근에 왜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네.

참 사냥을 잘하던 친구였는데.

안 그러냐, 태희야?"

서단의 말에 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 맞습니다! 그 친구는 멀리 왜나라로 갔죠!"

그 말에 첩자들은 조용히 물러갔어요.



"제 정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원은 서단에게 물었어요.

"맞네, 하지만 내가 모른 척을 한 것은 자네를 위해서였네. "

원은 서단에게 금귀걸이를 노리는 부여의 왕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단은 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어요.



원은 자신을 구해준 서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자 서단이 말했어요.

"내 관상을 볼 줄 안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쉽게 목숨을 잃을 사람이 아닐세. 아주 귀한 명을 타고났어."

원은 자신의 금귀걸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보답으로 이 금귀걸이를 받아주십시오.
소인은 이미 마한 곳곳에 얼굴이 알려져 위험하옵니다.
나리께서 이 금귀걸이를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서단이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나는 평생 자식이 없는 팔자를 타고났네.
내 자네에게 새 눈썹을 물려주었으니,
내 양자가 되어 우리 집에서 평생 이 금귀걸이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나.
게다가 나의 양자라면 아무도 자네의 정체를 알 수 없을 걸세."

원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기쁘게 나리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작가: 김나연



그날 이후,

원은 서단의 양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역시 멋진 아들이 생겨서 기쁘구나."

마한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원은
평생 서단의 옆에서 은혜를 갚고 또 이로운 일을 하며 살아갔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귀걸이!

김포 운양동 출토 금귀걸이



크기 : 길이 2.8cm × 너비 1.4cm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김포평야, 김포금쌀로도 유명한 김포는

예로부터 삼면이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농사를 지으며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물길을 따라 배가 드나드는 포구가 발달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금귀걸이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운양동 모담산 정상과 양촌읍에서는 기원후 3세기경
마한 지배계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운양동 유적 2-9지점 1호 무덤에서 많은 유물들과 함께 이 금귀걸이 한 쌍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석촌동 고분군 출토 금귀걸이보다도 백여 년이나 앞선, 무려 180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귀걸이입니다.

특히, 이 귀걸이의 형태는 만주지역에 자리했던 부여의 귀걸이와 형태가 매우 닮아있어
마한과 부여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교류의 고장 김포의 자랑인 이 금귀걸이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상설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그림동화
작가교실

신비한 금귀걸이와 소희의 여행
작가의 한마디

신비한 금귀걸이와 소희의 여행



김규인 하늘빛초/4학년
저희가 만든 책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윤 고촌초/4학년
열심히 했어요. 잘 봐주세요!



배지윤 고창초/4학년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오해림 고촌초/4학년
작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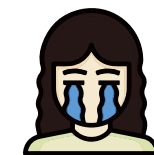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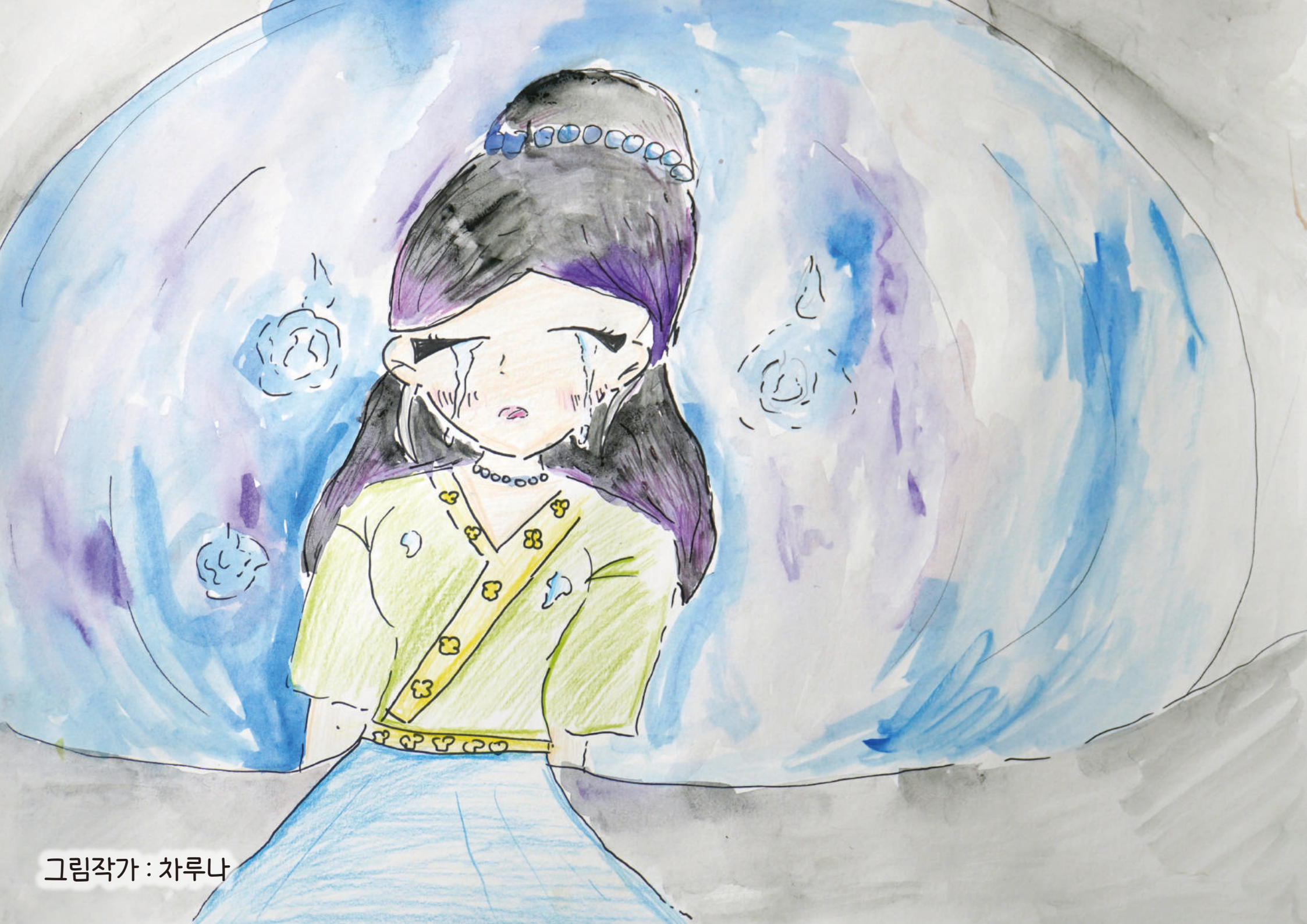
이세린 향산초/4학년
저희가 열심히 만든 책
많이 읽어주세요.



임소연 호수초/4학년
우리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루나 솔터초/4학년
책을 만들면서 재밌었습니다.
독자님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한 귀족의 딸인 소희는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사람조차도요.

오늘은 소희에게 부모님이 정한 정혼자와 만난 날이었죠.

소희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귀족으로 태어나 봤자야, 다른 이의 말대로만 사는 꼭두각시 같구나."



그때, 우물 옆에 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바로 금귀걸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 금귀걸이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 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금귀걸이를 사용할 때마다 꼭 불행한 일이 생길 것 입니다.]

소희는 금귀걸이를 귀에 걸었어요. 그리고 환한 빛과 함께 어디론가 빨려 들어갔어요.



소희가 도착한 곳은 마한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논일을 하는 소년을 만났어요.

"난 소희라고 해! 난... 여행자야! 그런데 넌 무얼 하고 있는 거니?"

"모내기를 하고 있어.

여름에 모를 잘 심어둬야 가을에 황금빛 벼를 수확할 수 있거든."

소년의 말에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먹는 쌀밥이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 얻은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날이 더운데 힘들지 않니?"

소희의 물음에 소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힘들긴! 우리 마한 부락들은 집집마다 모두 벼농사를 지어.

그중에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

우리 가현리 마을이야! 대단하지 않니?

우리 마을 쌀은 또 맛도 얼마나 좋게!"

소년은 초록빛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희는 소년을 도와 함께 벼농사를 지었어요.
난생처음 하는 논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일이 끝나고 소희는 소년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그러자 소년의 부모님이 말했어요.

**"원래 열심히 일을 하고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단다.
우리 아들 친구라고 했지? 많이 먹으렴!"**

소희는 화목한 소년의 가족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소희는 소년과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넷째 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언니, 나 어느 시골 마을에 여행을 왔어.
이곳에서 만난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어.
나 이곳이 더 알고 싶어.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다시 편지할게.]



그림작가: 이세린



한 편, 소희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소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한 곳곳에 소희를 찾는 방이 붙었어요.

소희의 셋째 오빠는 소희의 편지를 넷째 언니보다 먼저 읽게 되었어요.

셋째 오빠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혼자는

소희의 부모님에게 소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했어요.

"소희 아씨가 위험합니다!

지금 아씨와 함께 있는 자는 사람을 해친 것도 모자라

쌀과 과일을 훔친 도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훔친 물건을 장에 나가서 팔았는데,

그자가 판 쌀가마니에는 지푸라기와 쌀 두 알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장 소희 아씨를 찾아오겠습니다."

소희의 부모님은 정혼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자네만 믿겠네. 제발 소희를 찾아주게."



그림작가: 임소연



실은 정혼자에게는 소희와 꼭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으흐흐, 난 마한의 왕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마한에서 가장 높은 신분인 저 집안의 사위가 되어야 해!"



그림작가: 이세린



뒤늦게 소희의 편지를 읽게 된 넷째 언니는 소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시장에서 소희와 소년을 만났어요.

넷째 언니는 소희에게 정혼자의 거짓말을 전했어요.

소희는 금귀걸이에 적힌 쪽지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소희는 넷째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언니 나를 도와줘!"

넷째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뭐든 도울게!"



한편 정혼자는 자신의 시종들을 시켜 소희가 있는 시골 마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논일하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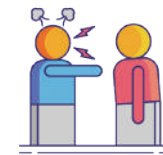
정혼자는 소희를 거칠게 잡아끌며 말했어요.

"너는 나와 가야 해! 내가 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

너와 결혼하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고!

어쩌면 마한의 왕이 될 수도 있지.

너도 왕비가 되면 좋지 않겠어?!"



그때,

소희의 부모님과 소희 그리고 소년이 정혼자 앞에 나타났어요.
실은 정혼자가 찾은 사람은 소희가 아니라 소희의 넷째 언니였죠.
정혼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부모님은 말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네. 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부모님의 호통에 정혼자는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림작가 : 임소연



소희는 부모님께 신비한 금귀걸이와
그동안 새로운 곳에서 경험한 멋진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금귀걸이 이야기를 들은 소희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 금귀걸이를 주운 적이 있었단다.
이 금귀걸이로 마을을 여행하다 네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

소희의 부모님은 금귀걸이를 통해서 처음 만났던 순간을 소희에게 들려주었어요.
논에서 농사를 짓고, 직접 지은 쌀로 밥을 지어 먹었던 일까지.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기억은 소희와 소년이 함께한 순간들과 닮아 있었어요.
추억을 떠올리는 부모님은 마치 소년, 소녀 같았어요.

**"하지만 이 금귀걸이가 부여의 마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금귀걸이에 대한 경고의 쪽지와 함께 버렸는데,
그것을 소희 네가 줬게 되었구나."**

부모님의 말에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소희는 부모님께 소년을 소개해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소년과 결혼하고 싶어요."

서로를 다정히 바라보는 소희와 소년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말했어요.

"저 소년과 결혼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해도 좋다."

부모님의 말에 소희와 소년은 기뻐했어요.



그림작가 : 김하윤



소희는 작은 상자에 금귀걸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쪽지를 썼어요.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이 금귀걸이는 불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은 나에게 오히려 행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림작가 : 배지윤



소희는 소년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금귀걸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행을 떠날 거야!"

"그래, 우리만의 여행을 떠나자!"

집을 나서는 소희의 마음이 두근두근 설렷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복작BOOK작 우리동네 그림동화 작가교실>

*** 양아들의 금귀걸이 그리고 왼쪽 눈썹의 비밀**

*** 신비한 금귀걸이와 소희의 여행**

펴낸 날 : 2024년 9월 28일

글/그림 : 김규인, 김나연, 김하윤, 박자인, 배서진, 배지윤, 오해림, 유아린, 이세린, 이주안, 임소연, 정수아, 조유나, 차루나

지도강사 : 김규남, 김주연, 최희태

펴낸 이 : (재)김포문화재단 (10110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대표이사 이계현

예술본부장 신영민

전통마을팀 박형숙, 이충현, 김유빈



9 791198 928801

